

박근혜 경선 불참 시사...한나라 분열 위기 고조

경선도 못 치러보고 당 쪼개지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경선 규칙 중재안에 박근혜 전 대표가 최후의 카드인 보이는 '경선 불참'까지 시사한데 맞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출마 기자회견으로 대응하면서 한나라당 내분 사태는 점점 심해져 치닫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측이 경선 규칙에 다시 한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조만간 분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하루전만 해도 말을 아꼈던 박 전 대표가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일단 경선 불참보다는 중재안을 마련한 강 대표와 경선을 변경을 요구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중재안을 낸 강 대표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적 중재안을 거둬들이고 이 전 시장은 무원칙한 주장을 접으라는데 방침이 있는 것이지 경선 불참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행보를 계속하며 '이 전 시장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분위기가 지속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시장에 "차라리 1천표를 줄테니 원래 합의된 물(8월-20만명)대로 하자"고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거취는 중재안의 전국위원회 회부 및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에서 중재안이 부결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강 대표는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전 시장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중재안이 수용될 경우 박 전 대표는 향후 진로를 둘러싸고 상당한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경선 불참도 가능하다는 것이 측근들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일단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내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명분과 원칙을 지키며 정공법으로 대응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표의 '판 흔들기'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당내 화합 차원에서 박 전 대표 진영의 공세에 대한 공식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압박을 가해 경선구도를 자신에게

박 "1,000표 줄테니 원래 물대로 하자" 전국위원회 중재안 처리 여부 '분수령'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속내도 읽혀진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재안이 전국위원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질 것에 대비,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물밑 홍보전을 펼치면서 아직 완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박 전 대표에 앞서 기선 제압을 나서고 있다.

한편, 범여권은 한나라당 내분 사태의 장기화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대선주자간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의 분열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가급적 범여권 통합작업이 성사되기 이전이 좋고, 이때의 분열은 범여권의 통합을 촉진시킬 때까지 작용할 것이라는 성급한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경기문화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에 관한 생각이 많은 듯 상념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도내 외국 기업 경영인 간담회 발언록

10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도 내 외국 투자기업 경영인과 전남도와 의 간담회에서는 외국 기업의 전남도 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지자체 차원의 준비 부족 등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 외국 기업 경영인들은 아직도 미온적이고 행정과 손발이 맞지 않는 투자유치 업무의 현 주소를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기업인들의 발언과 답변을 간추린다.

“조선소 4개 들어 오면 5만명 필요한데” “목포 폴리텍서 기능 인력 지속적 양성”

◇황선주 (주)일상 회장=302만평의 화양리 관광리조트를 조성중이다. 1단계 골프 아일랜드 오픈 일정과 진입로 건설 일정이 서로 맞지 않다. 양 일정이 일치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해달라.

◇전남도 관계자=도로개설 등 대규모 사업은 예산문제가 따라 공기를 앞당기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다.

◇조진욱 한국 바스프 회장은=전 세계 바스프 공장에서 한국의 임금은 매우 높은 편이다.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수준이다. 한국에 바스프를 유치하려면 임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정표 호남석유화학 공장장=총 1조 2천억원 투자 규모에서 여수에 대해 2천500억원 정도 밖에 투자하지 못했다.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김은식 태형 중공업 사장=현재 조선업은 호황이다. 그러나 실제 기자재 업체나 블록 공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중형 조선소 4개가 들어오면 약 5만명 이상의 기능인력 필요하므로 원가 절감 및 일시에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등의 자치단체와 협정을 맺어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전남도 관계자=목포 폴리텍 대학을 전원 조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요복 범우 대표이사=녹차 등 전남도 내 농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생산업체다. 농수산물 기능성 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아울러 '선주 협회(해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선주협회 등은 대규모로 선박을 발주하곤 한다.

◇김위형 다우케미칼 이사=소재 지역(여수)의 교육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여수 사람들이 떠난다. 교육 때문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전남은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 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공장, 서비스 산업 등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또 낙후지역에 정부 R&D 센터, 미래첨단산업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후 농촌은 지금의 2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관광산업을 사치산업으로 보는데, 매년 관광산업 적자는 막대하다. 특히, 해양관광산업을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도시에서만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더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에 산 임대 주택도 보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건교부도 동의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최고 권력자 아닌 최고 경영자 되겠다”

대선출마 공식 선언 이명박 예비 후보 등록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0일 오전 당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0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며 대권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본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국민 여러분은 마음껏 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일류국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문명사적 전환기를 뚫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해야 한다는 시대의 명령에 응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 고통스런

삶에 희망을 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눈을 뜨 수가 없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새롭게 도약하느냐는 앞으로 5년 내에 결정된다”면서 “앞으로 5년이 한민족의 21세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저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한다.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무능한 세력을 유능한 세력이 대체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백성운 전 경기부지사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강대표 “선원들 싸운다고 배 세울수 있나”

중재안 수정 불가 입장 밝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0일 “선장은 풍량이 불어오 배를 끌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선원들이 싸운다고 배를 세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표 측이 문제삼고 있는 자신의 중재안 중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하한선을 보장해주는 규정 등에 대해 “그 부분은 절충 못 한다”며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갖고 이것 저

것 고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조사 반영비율 하한선 보장 규정에 대한 소지가 있다는 박 전 대표 진영의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학원 전국위원회 의장이 중재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강 대표는 “그분(김학원)이 당이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잘 합의된 안을 올려달라는 일종의 건의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www.chosun.ac.kr/~grad

2007학년도 휴교조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모집(특별전형)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인터넷 원서접수	2007. 5. 14(월) - 6. 1(금)	어플라이뱅크 http://applybank.jinhak.com
서류제출	2007. 5. 14(월) - 6. 4(월)	제출서류는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면접	2007. 6. 16(토) 10:00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
합격자 발표	2007. 6. 30(토) 예정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www.chosun.ac.kr/~grad 를 통해서 발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신입생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구분	석사	박사(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일반과정	00명	000명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0명
	학연산 협동과정	0명
계	00명	000명

모집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chosun.ac.kr/~grad 또는 대학원 교학팀 062-230-44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에 날개를 달다!

누리(NURI)사업 8개 분야 선정!
국고지원금 568억으로 전국 대학 중 1위!
BK21사업 10개 사업단 선정!
지방중합사립대학 중 1위!
앞서가는 조선대학교의 교육·연구력이
지역과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를 키웁니다.
조선대학교, 당신의 경쟁력이 됩니다.